

‘그냥 사랑하는 사이’, JTBC 新 명작 탄생



이 드라마 첫 방부터 심상찮다. 그저 평범한 청춘 멜로인 줄 알았는데, 시대를 관통하는 사랑과 아픔 그리고 위로 같은 것들이 첫 회부터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그저 가슴 설레는 알콩달콩 사랑이야기가 아니

라, 가슴 한 켠에 남아있는 아픈 상처의 응어리를 지그시 들여다보며 그 따뜻한 응시로 풀어헤치는 그런 사랑 냄새가 나는 사랑이야기다. JTBC가 새롭게 편성한 월화드라마 ‘그냥 사랑하는 사이’는 쇼핑물

붕괴 사고로부터 시작한다. 48명이 죽은 그 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은 문수(원진아)와 강두(이준호). 하지만 살아남은 그들은 여전히 그 사고의 충격과 후유증 속에서 파편된 삶을 버텨내고 있다. 사고 현장에서

시대를 관통하는 상처받은 이들의 사랑 따뜻함으로 푸는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

동생을 잃은 문수는 그 트라우마와 죄책감 속에서 슬로 세월을 보내는 엄마와 그 엄마와 헤어져 국수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가는 애매 사이를 오간다.

강두는 무너진 건물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지만 온몸이 망가져버리고 그가 재빨리는 동안 집안이 망가진다. 결국 애매도 없고 엄마도 없는 강두는 동생과 덩그러니 세상에 던져지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해 하루하루를 버텨낸다. 건물 붕괴로 인한 끝없는 트라우마 속에서 건설현장 잡부가 되어 살아가는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진통제로 고통민을 잊은 채 살아가는 삶.

“그냥 사랑하는 사이”가 다루는 사랑이야기는 저 삼중백화점 붕괴사고나 세월호 참사 같은 우리네 기억 속에 저마다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아픔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그저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불쑥불쑥 기억의 수면 위로 올라와 우리를 건드리는 사고의 기억들. 그것은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이 시대의 아픈 정서 같은 것일 게다.

그래도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그 상처를 보듬어야 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나가야 하는 것일까. ‘그냥 사랑하는 사이’는 그 곳에서 살아남은 문수와 강두가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고 보듬는 사랑이야기면서 동시에 시대의 상처를 위로하는 이야기다. 참이 없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해 16층을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다 문득 마주치게 될 두 사람은 그래서 어쩌면 그 사고의 상처가 엮어준 운명처럼 서로를 만난다.

흥미로운 건 이들이 과거 사고현장을 중심으로 다시 엮히게 된다는

점이다. 무너졌던 건물에 새로 올라가는 바이오타운 건설에 문수는 건축사무소 건물 모형 만드는 일을 하면서 참여하게 되고, 강두는 건설현장 인부로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그 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아버지의 무고를 밝히고픈 서주원(이기우)이 있다. 즉 이미 무너졌던 건물의 흔적들은 사라져버린 지 오래지만, 그 곳에서 이들은 다시 과거의 기억들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

“그냥 사랑하는 사이”는 그래서 그 청춘 멜로의 관계들 속에 상처받은 시대의 그림자를 드리워놓는다. 그들은 그저 평범하게 사랑할 나이의 청춘들이지만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그것을 쉽게 용납하지 않는다. 대단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일이 쉽지 않은 이들에게 막막한 아픔과 위로의 마음이 생겨나는 건 그래서다. 그저 드라마의 밑그림일 수 있는 첫 회를 슬쩍 본 것이지만 마음 한 구석에 느껴지는 든증함. 이 드라마 어딘가 심상찮다.

美 언론 “트와이스 ‘Heart Shaker’, 완벽한 팝 탄생” 극찬



트와이스의 신곡 ‘하트 셰이커’가 국내 7개 음원차트 및 해외 9개 지역 아이튠즈 송차트 정상을 정복하며 7연속 인기훈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빌보드, 퓨즈TV 등 외신들도 호평을 보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빌보드, 퓨즈TV 등은 11일(현지 시간) ‘하트 셰이커’에 대한 리뷰

기사를 게재하며 깊은 관심을 표했다. 빌보드는 “트와이스가 ‘하트셰이커’로 컴백한 가운데 재미를 배가하는 뮤직비디오 또한 화제”라며 “‘하트셰이커’는 밝은 팝 장르로 평기한 기타 리프, 퐁퐁 뛰는 신스, 그리고 부드러운 화음이 조화를 이뤄 빈티지한 겨울 감성을 낸다. 기본 좋은 멜로디에 에너지와 장난기 섞인 코러스가 트와이스만의 화려하면서도 발달한 면모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뮤직비디오는 지극히 트와이스가 선보인 뮤비 가운데 가장 안무에 포커스가 맞춰진 버전으로 댄스 수가 2배로 증가해 18명이 댄스라는 점, 그리고 다양한 안무도 보고 느낌이 나는 안무 대형, 사람을 고백하는 순둥자 등이 감상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퓨즈TV 역시 “2015년 데뷔 후 K

팝을 주도해온 트와이스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새 싱글과 뮤직비디오로 성대했던 2017년을 마무리한다”면서 “2017년 트와이스의 4번째 싱글에 해당하는 ‘하트 셰이커’는 효과적이면서 빈티지한 느낌의 서프 팝 위로 흐르는 달콤한 후렴구가 특색으로 트와이스의 또 다른 완벽한 팝 탄생을 예고했다”고 호평했다. 이어 “‘하트 셰이커’ 뮤비는 트와이스 멤버들이 서로 포옹을 한다든지 익살 맞은 춤 동작(프로그래밍) 등으로 트와이스의 전매특허인 사랑스러움과 엉뚱함을 잘 나타내다”고 덧붙였다. 11일 오후 6시 각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새 리패키지 앨범 ‘베리&해피’의 타이틀곡 ‘하트 셰이커’는 12일 오전 11시 기준 멜론, 엠넷, 네이버, 지니, 올레, 소리바다, 빅스 등 7개 음원 차트 정상을 정복 중이다. 또 홍콩, 싱가포르, 태국을 비롯해 해외 9개 지역 아이튠즈 송

차트 1위, 이번 앨범 ‘베리&해피’의 또 다른 신곡이자 트와이스의 캐롤송 ‘베리&해피’는 홍콩, 싱가포르 등 5개 지역 아이튠즈 송 차트에서 2위를 기록하며 동반 인기를 얻고 있다. 앨범 ‘베리&해피’ 역시 태국, 베트남에서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유튜브에서의 상승세도 가파르다. 음원 발표와 함께 11일 오후 6시 유튜브에 공개된 ‘하트 셰이커’ 뮤직비디오는 17시간만인 12일 오전 11시 기준 81만뷰를 돌파했다. 전작 ‘라이키’가 22시간 만에 1000만 뷰를 달성한 기록과 비교해 ‘하트 셰이커’가 최단 시간 1000만뷰 돌파를 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타이틀곡 ‘하트 셰이커’는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버린 상대를 향해 용기 있게 먼저 다가가는 사랑을 이뤄내고 싶은 트와이스의 마음을 담은 곡이다. 트와이스의 캐롤송인 ‘베리&해피’는 겨울 느낌을 가득 담은 사운드에 처음으로 사랑에 빠져 맞이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가사로 표현했다.

‘냉장고...’ 고든램지 효과, 올해 최고 시청률 경신...분당 8% 육박



고든램지 셰프가 출연한 ‘냉장고를 부탁해’가 2017년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지난 11일 방송된 JTBC ‘냉장고를 부탁해’ 159회가 시청률 6.4%(닐슨 코리아 수도권 유료가구 기준)를 달성했다. 이는 올해 최고 시청률에 해당하며 지난 158회(4%)에 비해 무려 2.4%나 오른 수치다. 분당 최고 시청률은 7.8%까지 올랐다. 2019 ETC 시청률은 3.4%로 지상파를 포함해 동시간대 방송된 비드라마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전세계 셰프계의 레전드, 고든램지가 한국 예능

프로그램 최초로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15분 요리대결을 펼쳤다. 이미 출연 소식만으로도 엄청난 화제를 부른 고든램지는 그 명성에 걸맞은 역대급 대결로 모두의 기대를 충족시켰다. 2017년 최고의 1분을 장식한 장면은 고든램지와 이연복 셰프의 대결 결과가 공개되는 부분이다. ‘냉장고를 부탁해’의 최고 참가자 중식의 대가 이연복과 세계적인 스타 고든램지가 야구선수 오승환의 냉장고 속 재료로 대결을 펼쳤다. 고든램지는 낯선 환경에서도 참기름, 배추, 굴소스 등 냉장고 주인에 맞는 아시아 요리 재료를 능숙하게 사용해 ‘차돌박이 볶음’을 완성시켰다. 상대인 이연복 역시 ‘냉장고를 부탁해’의 대표답게 화려한 불 소를 벌이며 화과육과 알배추 찜을 선보였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치열한 승부의 결과는 고든램지의 승. 오승환은 “고든램지 셰프가 한국인 입맛에 완벽하게 맞는 요리를 대접해 주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한편, JTBC ‘냉장고를 부탁해’는 지난달부터 방송 3주년을 맞아 다양한 특집으로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이번주 고든램지 특집에 이어 오는 18일 부터는 한 시즌을 결산하는 연말 특집이 공개될 예정이다. 매주 월요일 밤 9시 30분 방송.

유재석, 6년연속 올해의 개그맨



유재석이 6년 연속 올해를 빛낸 개그맨 1위를 차지했다. 한국결합은 지난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올 한 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코미디언/

개그맨을 조사했다(두 명까지 붙은 결과(자유응답)). 그 결과 유재석이 38.3%의 지지로 6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유재석은 현재 MBC ‘무한도전’,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KBS2 ‘해피투게더’ 등에 출연 중이다. 2위는 강호동(23.3%)이 차지했다. 그는 KBS2 ‘해피선데이-1박2일’, MBC ‘황금어장-무릎파도사’ 등으로 2010년까지 유재석과 함께 알파 국민 MC로 군림했으며, 2010년에는 유재석을 뒤로하고 ‘올해

를 빛낸 코미디언/개그맨’ 1위에 오른 바 있다. 잠시 쇼크를 한 후 JTBC ‘아는 형님’, ‘한끼줍쇼’, tvN ‘신서유기’, ‘집중사’ (tvN) 등을 통해 승승장구 중이다. 3위는 박나래(15.9%)로, 여성 개그맨으로는 유일하게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2008년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그는 2012년 tvN ‘코미디 빅리그’를 통해 이름을 알렸다. 이후 ‘무한도전’, ‘리더 오스타’ 등에 게스트로 등장해 존재감을 발산하며 대세로 등극했다. 이 외에 MBC ‘나 혼자 산다’, ‘비디오스타’, ‘온스타일 ‘갯잇뷰티’, tvN ‘잔나비’ 등을 통해 활약 중

이다. 4위에는 신동엽(13.5%)이 랭크됐다. 그는 KBS2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를 비롯해 SBS ‘TV동물농장’, ‘미운 우리 새끼’ tvN ‘수요미식회’ 등에 출연하며 여전한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5위는 예능계 대부 이경규(9.5%)가 차지했다. 40여년간 토크쇼, 실내 예능, 리얼 버라이어티 등 모든 장르 예능을 섭렵하며 신구적 역할을 해 온 그는 현재 ‘한끼줍쇼’, ‘체널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MBC ‘세모방: 세상의 모든 방송’ 등에 출연하고 있다.

오늘의 순세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음력 10월 26일)

<p>▶ 쥐 불안과 방황하는 마음이 추진 중인 사업에 영향을 끼치겠다. 가까운 친구와의 대화가 마음을 안정시킨다. 먼저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자세가 문제에 해답을 주겠다. 확신하며 진행하는 일은 북서쪽 귀인의 협조가 있으면 크게 속도를 낼 수 있다.</p>	<p>▶ 용 기름진 대지에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마음의 여유가 있겠다. 뒷사람을 잘 받들면 출세운이 열린다. 부동산, 의료업 종사자는 길하다. 4, 7, 9월생 친구와의 우정이 막혔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p>	<p>▶ 원숭이 ‘급할수록 천천히’라는 말을 상기해 매사 신중할 자세를 가질 때 예상치 못한 희망이 찾아오고 희소식이 들리겠다. 애정은 여유 있게 배양된다. 배양하는 수니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라. 4, 5, 6월생 남쪽이 길하다.</p>
<p>▶ 새끼 깊이 생각한 언행이 내 이미지를 좋게 만든다. 등을 돌리며 저이 되는 일은 사소한 일로 인한 것이니 항상 사랑을 주고 베풀면 몇 배 이득이 내게 돌아옴을 알라. 10, 11, 12월생 희색 옷이 사방에 귀인을 만들어준다.</p>	<p>▶ 돼지 결전의 그날이 머지않아 다가오니 작은 일을 정성껏 이룰 때 큰일도 이룬다는 사실을 알라.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자세야말로 사업 발전에 큰 영향을 주겠다. 소, 말, 개띠가 귀인이 돼 줄 듯. 어제의 실수를 반성해 내일의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라.</p>	<p>▶ 닭 최선을 다해 일하나 분주하지만 할 뿐 만족하지 못하니 마음이 불안한 상태구나. 북쪽에서 도움 줄 자 나타날 수. 매사에 겸허하고, 남의 처지를 이해하는 마음이 따를 때 사업과 가정 만사 기할 듯.</p>
<p>▶ 호랑이 지금의 난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극복할 슬기를 배울 수 있다. 시련 속에서 배움을 얻어 전화위복이 될 운이다. 희망을 품고 일을 추진할 때 뒤, 닭, 양띠가 협력자가 돼주니 모든 일에서 큰 성과가 있겠다.</p>	<p>▶ 양 보기에는 아주 위태로우나 약간의 어려움만 극복한다면 그 빛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다. 자포자기는 금물이다. 약간의 재물이 따르나 허황한 꿈을 꾸니 금전으로 인한 손실이 뒤따른다. 문서 관리 철저히 하라. 애정은 온 길하다.</p>	<p>▶ 개 구실을 찾거나 잔꾀를 부리지 않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 바, 토, 승 성씨 내 것과 남의 것을 분별할 때 짚어진 짐을 덜 수 있다. 중기는 아픔을 참고 싸야 상처가 아무는 법임을 깨달아야 한다. 쥐, 개, 토끼띠와 협력하라.</p>
<p>▶ 토끼 여기저기 일만 벌여놓으면 예상치 못한 사태가 일어난다. 분수 밖의 일에는 눈 돌리지 말고 현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야 기쁨이 두 배 되겠다. 북쪽 여행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있겠으니 내일로 미루면 좋다. 투자하는 사람 재점검하라.</p>	<p>▶ 돼지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리니 소원 성취할 수. 귀인의 도움을 받으니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는 운이다. 경계망동은 삼가고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남도 지배할 수 있음을 알고 행하라. 기, 바, 오 성씨 자녀를 잘 지켜볼 때다.</p>	<p>▶ 돼지 번거롭고 답답했던 일들이 주위 도움으로 시원스럽게 풀릴 운이다. 애써 확장하려 하지 말고 현재 위치를 확고히 다지라. 5, 8, 12월생 금전 손실이 예상되면 길 출하는 삼갈 것. 기, 토, 표 성씨 동업은 피하라. 구설로 마음고생 심할 듯.</p>